高麗時代의 吏讀資料와 그 判讀*

李 丞 宰
(聖心女大 敎授)

〈目 次〉

Ⅰ. 緖 言
Ⅱ. 高麗時代의 吏讀資料
Ⅲ. 資料의 判讀
Ⅳ. 結 語

Ⅰ. 緖 言

이 글은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독을 정확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두 연구의 첫 단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를 정리한 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장지영·장세경(1976)과 洪淳鐸(1974)이 70년대까지의 이두 연구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거의 대부분 일제시대부터 이미 알려진 것이고 그것도 大明律直解 이후의 자료에 집중된 것이었다. 예컨대 高麗末 國寶戶籍은 해방 이전에 학계에 소개된 바 있으나 여기에 쓰인 이두는 전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근대 이후의 여러 이두 자료집에 나오는 이두의 독법을 정리하는데 매달려, 大明律直解 이전의 이두 자료에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두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安秉禧(1977, 1983, 1985, 1988) 朴喜淑(1985)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거의 대부분 大明律直解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국사학자들이 해방 이후 특히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발굴하기 시작한 고려시대의 사료에 많은 이두가 사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어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해방 이후에 발굴된 이두 자료로서 국어학계에 알려져 있는 것은 松廣寺奴婢文書(A. D. 1281)[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자료와 같이 발굴된 修禪社現況記(A. D. 1221~1226)에도 이두가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논의한 국어학자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를 모두 모아 국어학계에 소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려시대 이두 자료는 許興植 등의 국사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그런데 국사학자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거나 역사적 가치를 논의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는 것이 상례이다. 그 결과로 문맥이 어느 정도 통하면 이두의 정확한 판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

* 이 논문은 1988년도 文敎部 學術硏究 造成費의 지원을 받은 것임.

1) 任昌淳(1971)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南豊鉉(1974) 洪淳鐸(1976) 등이 이를 판독한 바 있다.

두를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어의 역사적 발달을 연구하는 국어학도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 단 하나의 이두 용례라도 그것이 정확하고 국어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여러 이두 자료의 判讀上의 誤謬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작업에는 原典을 확인하면서 이미 나와 있는 諸家의 판독을 서로 비교하여 비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李基白(1987)은 사진을 부록으로 싣고 있어서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둔다.

Ⅱ. 高麗時代의 吏讀資料

이두 자료에는 助詞나 語尾類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두문에는 인명이나 지명이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사나 어미류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두문도 있다. 즉, 문법 형태소가 전혀 쓰이지 않은 이두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이두 자료에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먼저 논의하여야 한다.

이두 자료를 연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국어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굴절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助詞나 語尾 따위의 文法 形態素가 사용된 자료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이에 비해, 人名이나 地名밖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國語史 특히 文法史를 연구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荒宗에 대응하는 居柒夫가 고대국어 당시에 '*ㅊ'이 존재했음을 증명해 주는 예가 되듯이, 인명이나 지명 표기가 音韻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음운사 연구에 촛점을 맞춘다면 구태여 이두 자료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三國史記 地理誌나 각종의 史書에 나오는 地名 官名 그리고 人名만으로도 음운사 연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문법사 연구에서는 적어도 문장 차원의 자료가 아니면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이 어휘자료인 鄕藥救急方은 고려시대의 음운체계를 연구하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사의 연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사나 어미류가 사용된 이두 자료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문법 형태소가 사용되지 않은 이두 자료가 존재하지만 이는 이 글의 목적과 크게 어긋나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로서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것은 五十 餘種이다. 여기에는 絶對年度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절대년도가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어서 밝혀지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資 料	年 代	略 號
1. 慈寂禪師凌雲塔碑(碑陰)	A. D. 941	(慈寂碑陰)

2. 星州石佛坐像背銘 967 (星州石佛)
3. 校里磨崖石佛 977
4. 開心寺石塔記 1010
5.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1031 (淨兜寺形止記)
6. 普賢寺石塔記 1044(추정)
7. 通度寺國長生石標 1085
8. 密陽國長生石標 1085
9. 蔚州國長生石標 1085
10. 羅州西門內石燈記 1093
11. 僧正景廉石棺銘 1102
12. 川北觀世音寺鐘銘 1107
13. 密陽五層石塔造成記 1109
14. 楊等寺牛子 1160
15. 表忠寺舍銀香垸 1177
16. 泰和貳年銘牛子 1201
17. 高嶺寺飯子 1214
18. 丁丑銘飯子 1217(추정)
19. 利義寺飯子 1224
20. 修禪社寺院現況記 1221-1226 (修禪社現況記)
21. 福泉寺飯子 1238
22. 修定寺飯子 1240
23. 尙書都官貼 1262
24. 松廣寺奴婢文書 1281
25. 光山金氏金穎戶口單子 1333
26. 咸昌金氏丙子年准戶口 1336
27. 淸州牧官文書 1349
28. 感恩寺飯子 1351
29. 海南尹氏奴婢文書 1354
30. 白巖寺貼文 1357
31. 慶州司首戶長行案(其一) 1361 (慶州戶長其一)
32. 李子脩政案 1366
33. 白文寶子女分衿文書 1371
34. 密陽朴氏壬子年准戶口 1372
35. 李子脩告身(其一) 1376
36. 長城監務官貼文 1378
37. 慶州司首戶長行案(其二) 1379 (慶州戶長其二)
38. 南氏奴婢文書 1382
39. 李子脩告身(其二) 1382
40. 柳從憙告身(其一) 1383
41. 張戩所志 1385
42. 柳從憙告身(其二) 1387
43. 高麗末國寶戶籍文書 1390-1391 (高麗末戶籍文書)

(2) 1. 庚戌銘白雲寺飯子

2. 癸未銘鍾
3. 癸酉銘靑銅神將立像臺座銘
4. 乙酉銘菩提寺盤子
5. 乙亥銘頭正寺鍾
6. 戊子銘法泉寺光明臺
7. 戊子銘靑銅香垸
8. 丙寅銘禁口
9. 壬午銘資福寺飯子
10. 壬午銘靑銅淨甁
11. 乙巳銘銅鍾
12. 乙酉銘華嚴寺半子
13. 丁巳銘尙州安水寺鍾

鮎貝(1934)에 의해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로 알려지게 된 洪武 연간의 女奴賣渡文書(第一號)는 고려시대의 자료가 아닌 것이 확실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 자료에서는 주격조사 '一伊'와 연결어미 '一古'가 사용되었는데, 고려시대의 다른 자료에서는 이들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一亦'과 '一遣'으로 나타날 뿐인 것이다. 또한 李兆年이 著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鷹鶻方'도 제외된다. 이조년은 生年이 A.D.1269~1343년이고 元나라에 직접 간 적도 있다는 사실과, 鷹坊都監이 1283년에 설치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鷹鶻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은 믿을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두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汚川居韓進士狀'은 '分叱' '沙乙' 등이 하나의 글자로 합하여진 '𠯿' '𡱒' 등으로 표기된다는 점이 의심스럽다. 고려시대의 이두문에서는 이처럼 二字를 합성한 이두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女奴賣渡文書와 鷹鶻方의 '汚川居韓進士狀'은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서 제외한다.

이에 비해 비록 한두 가지의 이두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자료가 확실한 것들은 논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光山金氏金稹戶口單子 密陽朴氏壬子年准戶口 등의 자료에는 '戶矣'의 '矣'만이 이두자로 쓰였고, 普賢寺石塔記 羅州西門內石燈記 表忠寺舍銀香垸 庚戌銘白雲寺飯子 癸未銘鍾 癸酉銘靑銅神將立像臺座銘 乙酉銘菩提寺盤子 乙亥銘頭正寺鍾 乙巳銘銅鍾 乙酉銘華嚴寺半子 등의 자료에서는 '願以' 혹은 '願以'의 '以'만이 이두자로 쓰였다.

(1)의 자료에는 일차자료가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위의 자료는 後代에 간행하거나 필사한 자료에 나오는 이차자료를 포함한 것인데, 尙書都官貼 光山金氏金稹戶口單子 咸昌金氏丙子年准戶口 李子脩政案 慶州司首戶長行案(其一, 其二) 南氏奴婢文書 密陽朴氏壬子年准戶口 李子脩告身(其一, 其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비록 이차자료이긴 하지만 사용된 이두가 고려시대의 이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일차자료와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 尙書都官貼과 慶州司首戶長行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尙書都官貼은 嘉靖版 文化柳氏世譜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將來'가 이두로 쓰인 예가 있어 주목된다.

(3) 臣 無有 作福作威 爲將來臥乎等 用良(尙書都官貼 17행)

이러한 용법의 '將來'는 鄕歌에서만 확인되고 조선시대의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慶州司首戶長行案에는 후대에 필사할 때 이미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었던 듯 '下五字缺' '下四字缺' 등의 주석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이두인 '等叱'이 사용되었다.

(4) 古有六部 一曰中興……六曰臨川等叱 六部(慶州戶長 其一 2-4행)

이 '等叱'도 조선시대 이후에는 찾기 힘든 이두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이차자료를 있는 그대로 모두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예컨대 南氏奴婢文書는 조선 숙종조에 쓰여진 南宗通記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爲臥乎를 爲叱乎로 속격조사 矣를 衣로 기록하는 등의 잘못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가 洪武 19년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자료로 다루는 것일 뿐, 이 문서에 기록된 이두가 모두 정확한 고려시대의 이두라는 뜻은 아니다.

한편 이두가 자료의 절대연도 추정에 도움이 되는 예도 있다. 星州石佛坐像背銘은 黃壽永의 增補韓國金石遺文(1978, 이하 유문)에 따르면 年代未詳이나 이두의 용례에 비추어 보면 A.D.967년으로 밝혀진다.[2] 여기에는 '□石□成內(?)□'(2행)과 '和上供養 村合任成之'(5-6행)의 '內'와 '之'字가 이두로 쓰였는데, 이들은 신라시대의 이두 자료에 자주 쓰이고 고려 초기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5) '成內'의 용례

1. 經成內 法者 楮根中 香水 散糸 生長 令內弥 (華嚴經寫經 2)
2. 此以 本爲內 十方旦越 勸爲 成內在之 (禪林院鍾 2-4)
3. 見聞隨喜爲賜 人乃 皆無上菩提 成內飛也 (新羅嶺興寺鐘 4-6)
4. 咸通陸歲 乙酉二月十二日 成內 □□寺禁口 (咸通銘禁口)
5. 菁州蓮池寺鐘 成內 節 傳合入金七百十三廷 (菁州蓮池寺鐘)
6. 甲子二月廿日 松山村大寺 鍾 成內 文 節 (松山村大寺鍾)

(6) '之'의 용례

1. 漢城下後阝 小兄文達 節 自此西北行 涉之 (高句麗城壁刻字)
2.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壬申誓記石)
3. 戊戌年四月朔十四日 另多里村高(?)□塢作記之 (戊戌塢作碑)
4. 崩破者 罪教事 爲 聞教令誓事之 (南山新城碑)
5. 亡妣官肖里夫人 年六十六 古人 成之 東海欣支邊 散之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6. 庚申年四月廿二日 長逝爲□之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 開元十三年乙丑三月八日 鐘成記之…… (上院寺鐘記)
8. (ホ?)接五 馬於內 上(ホ?) 一具 上同之 (第二新羅帳籍)
9. 乙未載二月十四日 一部 周 了 成內之 (華嚴經寫經 1)

2) 許興植의 韓國金石全文(1984)에서 이미 967년으로 추정된 바 있다.

10.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娚姉妹三人業以 成在之 (葛項寺石塔記)
11. 二月十二日 元 四月十三日 此間中 了治內之 (永川菁堤碑其二 3-6)
12. 此以 本爲內 十方旦越 勸爲 成內在之 (禪林院鍾 2-4)
13. □□元年 乙酉八月 成文 □□□ 節中 成之 (英陽石佛背銘)
14. 加知谷寺谷中 入 成造爲鷹臥亦之 白臥乎 味 (慈寂碑陰 3-4)

'成內'는 10회 가까이 사용되었는데, 그 시기는 A.D. 755년에서부터 A.D. 904년까지이다. 종결어미로 쓰인 '之'는 20여회 사용되었는데 고려 초기의 자료인 慈寂禪師凌雲塔碑까지 쓰였다.

그런데 이 星州石佛坐像背銘은 '德五(?)年丁卯三月十日'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5세기와 10세기 중엽 사이에서 '德'字를 연호로 하는 시기를 찾으면 이 자료의 절대연도를 정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연호로서 '德'字를 가진 것은 至德 永德 文德 光德 顯德 乾德 등이 있으나, 丁卯年을 끼고 있는 것은 乾德뿐이다. 또한 乾德 五年은 정확하게 정묘년에 해당하므로 이 자료의 절대연도는 乾德 五年 즉 A.D. 967년이라 단정할 수 있다.

(2.13)의 丁巳銘尙州安水寺鍾도 이두의 용자로 보아 A.D. 1377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7) 丁巳七月日 尙州安水寺金鍾 鑄成爲乎 事叱段 前排鍾亦 水金沙 余良 破不用爲去乎ㅎ 用良 (丁巳銘安水寺鍾)

이 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이두 부분은 '沙 余良'이다. 沙字는 尙書都官貼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余良는 高麗末戶籍文書에 와서야 비로소 쓰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고려말에 가장 가까운 丁巳年 즉 A.D. 1377년에 만들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Ⅲ. 資料의 判讀

앞에서 소개한 자료는 대부분이 이미 판독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독한 학자마다 해독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하나씩 들어보이면서 필자의 판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두문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새로운 판독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필자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므로 주로 이두 부분에서 발견되는 판독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데에서 멈출 것이다.

(1.1)의 慈寂禪師凌雲塔碑(碑陰)은 朝鮮金石總覽(이하 총람)에서 판독되기 시작하였다.[3] 그러나 총람에서는 한문 부분과 이두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까지를 이두로 읽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것은 吏讀集成(이하 集成)에 와서의 일이다. 그 후 유문 등의 자료집에서 다시 판독된 바 있으나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 총람의 판독을

3) 이 자료의 탁본으로는 趙東元(1983)을 이용하였다.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을 준다. 이들의 판독은 南豊鉉(1976)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맥이 거의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잘못된 곳이 많다.

(8) 1행 : 赤牙射驚山中(集成)——→赤牙縣驚山中(南豊鉉)
3행 : 別也主 無亦(南豊鉉)——→別地主 無亦
4寺 : 衆矣 白賜臥乎 白如加 知谷寺谷中(集成)——→……貞如 加知谷 寺谷中(南豊鉉)
4행 : 白臥淨味(유문)——→白臥乎 未(?)(南豊鉉)——→白臥乎 味
5행 : 成造 爲使賜爲(集成)——→成造 爲使賜爲 敎(南豊鉉)
7행 : □國家□山院名貴十四列郡縣契(集成)——→允國家以 山院名 幷 十四州郡縣契(南豊鉉)

1행의 赤牙射는 赤牙縣의 誤讀이 분명하고 3행의 別也主는 別地主가 되어야 문맥에 맞는다. 4행에서 集成이 白如加로 읽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해독이다. 앞에 같은 동사어간을 가지는 白賜臥乎가 온다는 통사론적인 문제점이 남을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다가'는 如可로 표기되지 如加로 표기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南豊鉉의 해독은 통사론적 구조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무리가 없다. 역시 4행의 白臥淨은 白臥乎으로 읽어야만이 올바른 이두가 되고, 未는 역시 味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5행에서는 南豊鉉이 마지막에 敎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판독이라 할 수 있다. '삼'으로 읽히면서 '-도록, '-게끔'의 의미를 가지는 爲 뒤에는 상위문의 수행동사라 할 수 있는 爲 혹은 敎(또는 敎是) 등의 동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7행의 貴와 列은 각각 幷과 州로 바뀌어야만 문맥이 통한다.

(1.5)의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는 앞의 慈寂禪師凌雲塔碑와 더불어 일제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자료다. 이에 대한 판독으로는 前間(1926) 鮎貝(1934) 그리고 集成(1934) 등이 중요한데, 모두가 완벽한 판독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4]

(9) 13행 : 十一月六日 元伯士身寶衆三亦(前間, 集成)——→十一月六日元 伯士身寶衆三亦(南豊鉉 1975)
14행 : 第二年春節已只 了兮 聞遣 成是 不得爲(集成)——→……了兮……(鮎貝)
19행 : 同年春秋多念丁 今多石練已畢 爲內弥(鮎貝)——→同年春秋多 念丁 今多石練已畢 爲內弥(集成)
20행 : 司倉上導行審是白乎矣(前間)——→司倉上導行審是內乎矣(鮎貝)——→司倉上導行 審是內乎矣
24행 : 寺代內 應爲 處 追于 立是內乎 味(前間)——→寺代內 應爲 處 追于 立是白乎 味(鮎貝)
30행 : 邀是白內叱乎亦 在弥(鮎貝)——→邀是白內乎亦 在弥
30행 : 石練時乙 順可只而 今良中 至兮(鮎貝)——→石練時乙 順可只 而今良中 至兮
31행 : 順可只而今良中 至兮(集成)——→……至兮(鮎貝)

13행의 元은 15세기의 '비롯-'에 해당하는 이두로서 현대어의 '-으로부터'의 뜻을 가진다(南豊鉉 1975). 따라서 元伯士로 붙여 읽고 이를 貞元伯士의 略字라 한 前間의 해독은 옳지 않다. 14행의 了兮는 이두로 읽어야 할 것이다. 15세기의 'ᄆᆞᄎᆞ리'에 해당한다. 了兮 바로 뒤에 오는 聞遣의 聞字는 字劃으로 보면 齊에 가깝다(高正儀 1987 참조). 그러나 齊

4) 최근에 이 形止記를 高正儀(1987)가 깊이 있게 다룬 바 있다.

를 그대로 두고 읽는 것보다는 聞으로 바꾸어 읽는 것이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훨씬 좋다. 19행의 念丁은 향가에도 쓰였는데 현대어의 '-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로 보는 견해(梁柱東 1965)와, '지나서'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류로 보는 견해(小倉 1929)가 있다. 형태론적 구성을 중요시한다면 '-々장'을 대응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나 의미상으로는 동사로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즉 丁을 살린다는 점에서는 '-々장'이 좋으나, '봄 가을 겨울까지'라는 표현은 어쩐지 어색하다. 시간적 도달점을 표현할 때에는 '同年 겨울까지'로 충분한데 '겨울' 앞에 '봄 가을'을 열거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 오는 今冬과 시간적으로 어울리게 읽으려면 念丁을 '지나서'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高正儀(1987 : 12)를 따라 '지나서'의 의미로 읽되 念丁의 형태론적 구성은 문제로 남겨 둔다.

한편 前間은 內와 白의 字形을 서로 혼동하여 20행과 24행에서와 같은 잘못을 범하였다. 20행의 審是는 15세기의 '숣피-'에 대응한다. 30행 邀是白內叱乎亦의 叱字는 字體로 보면 叱에 가장 가까우나 이두로는 매우 특이한 존재다. 이는 작성 당시의 착오로 인하여 끼여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內字 다음에 바로 乎字를 써야 할 터인데 실수로 劃이 잘못 나갔고, 이를 꺽자로 지운다는 것이 오히려 叱字의 모양이 되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舊譯仁王經에서도 찾을 수 있다. 劃이 잘못 나가 이를 지운다는 것이 결국은 爻字의 위쪽 두 劃과 같은 모양으로 남게 된 예가 있는 것이다(十一면 23행 참조). 叱字가 二百餘年 뒤의 자료인 修禪社現況記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30행의 而今을 而와 今으로 나누어 읽어서는 안 된다. 국어사전에 而今이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順可只가 尙書都官貼에 사용되고 이와 유사한 順音可도 慶州戶長其一에 쓰인 바 있기 때문이다.[5]

(10) 1. 此亦中 崔忠獻矣段 去丙辰年分 謀作大事爲遣 王室乙 順可只 再度搖動 令是白乎 事是良尒(尙書都官貼 75-76)
2. 光宗朝良中 堂祭乙段 號戶長爻八乙 制定 敎事是 置(下五字缺) 首戶長姓名乙 順音可 施行流傳爲臥乎等(慶州戶長其一 16-18)

그런데 14행의 了令 31행의 至令에 쓰인 令를 이두로 읽어야 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고려시대까지의 이두에서는 이 두 예만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令가 차자표기에 이용된 예로 舊譯仁王經의 僉然令(二, 19) 自然令(二, 18) 快令 略令(十一, 13) 등을 들 수 있다. 至令는 문맥으로 보아도 후대 이두에 나오는 至亦에 일치하므로 여기서는 鮎貝를 따라 令를 吏讀字로 간주한다.

(1. 20)의 修禪社現況記는 학계에 처음 소개한 任昌淳(1971)이 판독한 뒤, 이어서 許興植(1976)이 판독하였으나 8행의 '忌日寶以 納國同郡'과 16행의 '參知政事崔 祝'에서 각각 '國'과 '知'를 빠뜨리는 등 잘못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5) 홍기문(1957 : 326)에서 이미 '順可只 而今良中'으로 끊어 읽은 바 있다.

(11) 2행 : 上行法席(任昌淳, 許興植)——常行法席(李基白 1987)
7행 : 鐵谷村新谷村ホ叱庫(任昌淳, 許興植)——鐵谷村新谷村ホ叱 庫庫

특히 7행의 ホ叱은 이두로서 매우 중요한 예다. 이는 15세기의 '-트렛'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두에서는 복수접사 ホ에 속격조사 叱이 직접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李丞宰 1987ㄱ 참조). 이 ホ叱은 다음의 예에도 쓰였다.

(12) 1. 古有六部 一曰中興……六曰臨川等叱六部(慶州戶長其一 4)
2. 記官崔江僧崔純令同正白漢林等叱 二十餘人亦(慶州戶長其二 13)
3. 前判書李善……戶長金君子等叱 內外兩班亦(慶州戶長其二 18)

이 자료에서는 ホ字가 等으로 적혔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한편 修禪社現況記에는 原文에서부터 잘못 적힌 이두가 있다.

(13) 15행 : 柴地段 山谷是尒良——……山谷是良尒
17행 : 昇郡平地 吐叱村——昇平郡地 吐叱村

이들은 문서를 작성할 때 빠뜨린 글자를 바로 뒤에 보충하여 적어 넣은 결과임이 분명하다.

(1.23)의 尙書都官貼은 許興植(1982 上·下)이 학계에 소개한 자료다. 이는 고려시대의 吏讀資料로는 가장 분량이 많은 111행이나 되고 特異한 이두가 여러 가지 사용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예컨대 順可只 將來 將近亦 등의 特異한 이두가 쓰였고 이두인 敎是 혹은 敎가 동사어간으로 사용된 예가 매우 많다.

(14) 17행 : 臣 無有 作福作威爲 將來臥乎等 用良(許興植)——臣 無有 作福作威爲將來臥乎等 用良
18행 : 本朝敎是 祖聖統合三韓已後 三百年將 近亦(許興植)——本朝 敎是 祖聖統合三韓已後 三百年 將近亦
27행 : 自利爲旀 先齊(許興植)——自利爲先 爲齊
62행 : 稱下 爲良於爲 敎是 督本鄕加號(許興植, 李基白 1987)——稱下 爲良於爲 敎是齊 本鄕加號
97행 : 書允愷(李基白 1987)——崔允愷(許興植)

17행의 將來는 이두로서 문법형태소 '-려-'에 해당한다(李丞宰 1987ㄴ). 이는 鄕歌에서 5번 사용된 바 있으나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두다. 18행의 將近은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로서 將近亦은 15세기의 '갓가이'에 대응시켜 읽어야 한다(李丞宰 1987ㄴ). 將만을 따로 떼어 읽는 방법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62행 敎是齊의 齊는 희미하여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글자인데, 이를 督으로 읽으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두를 어느 정도 아는 이라면 이것이 이두의 종결어미 齊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이 자료에는 旀가 下에 직접 연결되는 예가 있어 눈길을 끈다.

(15) 並只 許通 向事乙 各掌所司戈只 啓受 使內良於爲 下旀 兵馬 敎事是去有在亦(15-16행)

이 때의 下도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으나 下字로 읽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곳의 下

는 동사어간의 표기에 사용된 셈인데 이러한 용례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良於爲의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동사어간은 상위문의 수행동사 爲와 敎是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15)의 下는 爲가 와야 할 자리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爲 대신 下를 이용한 이유는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앞에 오는 使內良於爲의 爲(이는 '삼'으로 읽힘)에 다시 爲(이는 'ᄒᆞ'에 해당함)가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된다. 고려시대까지의 吏讀資料에서는 '-爲 爲-'의 연결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下를 동사어간 'ᄂᆞ리-'로 새겨 읽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下가 爲나 敎是와 마찬가지로 수행동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 둘중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1.24)의 松廣寺奴婢文書는 任昌淳(1971)에서 판독되기 시작하여 南豊鉉(1974)에서 해독이 완결되었다. 許興植(1976) 李基白(1987) 등이 南豊鉉(1974)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洪淳鐸(1976)과는 두어 군데에서 차이가 난다.

(16) 4행 : 主掌都監以(洪淳鐸)——主掌都官以(南豊鉉)
11행 : 所生 并以 屬令是白乎在等以(洪淳鐸)——所生 并以 屬令是白去乎 在等以(南豊鉉)

11행에서의 洪淳鐸(1976)의 실수는 脫字가 아닌가 한다. 너무도 字體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이다.

許興植(1981)이 소개한(1.26)의 咸昌金氏丙子年准戶口에는 并只만이 이두로 쓰였는데, 이보다 오히려 ㅂ只方言小兒之稱이라는 註釋이 더 흥미로운 자료이다. 현대어의 '아기'는 신라시대에는 福으로 적히고(李基文 1970) 이것이 이 ㅂ只를 거쳐 巴只로도 적히게 된다. 南豊鉉(1985)는 이 ㅂ字가 包字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開心寺石塔記에 나오는 阿志는 후대의 阿只로 이어지는 것 같다. 阿只의 예로 海南尹氏奴婢文書의 大阿只를 들 수 있다. 따라서 ㅂ只와 阿只는 서로 어원을 달리하는 말이거나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서로 다른 방언형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方言이라는 용어도 흥미로운 것이다. 薛聰이 '以方言讀九經'했다는 기록에서의 '方言'이 口訣에 가까운 것인지 이두에 가까운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초창기 차자표기의 단계에서는 口訣과 이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 자료의 方言뿐만 아니라 林景和 墓誌銘(A.D. 1159)에 나오는 方言도[6] 넓은 범위의 모든 우리 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7)의 淸州牧官文書는 許興植(1985)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판독은 李基白(1987)의 판독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자료에서는 속격의 叱이 명사에 직접 연결되는 첫 예가 발견된다.

---

6) 蔡雄錫敎授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是時 孫氏竄經始行于世 然讀者莫曉其意 公以方言釋之 奏取朝旨頒諸中外 遂興養竄之法(李蘭暎의 韓國金石文追補 참조)

(17) 州應天寺南禪院化林寺叱 不多田地乙 菩薩寺良中 屬 令是旀(3행)

修禪社寺院現況記에서 이미 ホ叱이 사용된 바 있지만 叱이 명사에 직접 연결되는 예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1.28)의 感恩寺飯子는 許興植(1984)에 판독되어 있다.[7] 干支에 쓰이는 '辛卯'年의 卯字가 薯童謠에 쓰인 卯字로 되어 있다는 점과 鷄林府地感恩寺의 地의 용법을 지적해 둘 만하다.

(1.29)의 海南尹氏奴婢文書는 金東旭(1972)에 맨처음 소개되어 알려진 것으로 許興植(1976)이 판독을 시도했으나 誤讀이 많다. 또한, 해남윤씨 고문서를 전부 판독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자료집도 잘못이 많은 편이다.

(18) 첫째면 5-6행 : 傳持領長使用爲乎矣(許興植)——→傳持鎭長 使用爲乎矣
세째면 3행 : 傳持爲白事臥乎(許興植)——→傳持爲白等乎(정문연)——→傳持爲白有臥乎(李基白)
세째면 5행 : 成給白 敎事(許興植)——→成給 向敎事
네째면 4-5행 : 使內白乎事是尒(許興植)——→……事是良尒
일곱째면 3-4행 : 筆執ホ乙所志(許興植)——→筆執ホ各所志(정문연)——→筆執ホ矣 所志

첫째면 5-6행의 鎭長은 松廣寺奴婢文書의 鎭長屬社에 이미 사용된 바 있다. 세째면 3행의 爲白有臥乎은 有字 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나 許興植과 정문연의 판독에 만족할 수는 없다. 李基白(1987)의 爲白有臥乎은 臥乎 앞에 爲白有가 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白에 有가 직접 연결된 예로는 唯一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吏讀資料에는 爲白有의 연결 예가 많으므로 이 예를 爲白有의 선구적인 예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째면 5행의 向敎事는 張戩所志 15행 '還給明決 向敎是 事乙良'의 '向敎是 事'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네째면 4-5행의 事是良尒과 일곱째면의 筆執ホ矣는 너무도 분명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1.30)의 白巖寺貼文은 原本을 볼 수 없는 자료로[8] 鮎貝(1934 : 594-595)와 集成(附錄 17-18)의 판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몇 군데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	鮎 貝	集 成
1.	不勉入院	不動入院
2.	出納爲臥事是去等	出納爲臥乎 事是去等
3.	頹落爲紘如	頹落爲 紘如

첫째와 둘째 예에서는 集成이 옳은 것 같고 세째의 예에서는 鮎貝가 옳은 것 같다. 集成은 3의 紘如를 부사로 보아 '계속하여'의 뜻으로 읽었는데 이 해석에 만족할 수는 없다.

7) 이 자료의 탁본을 열람케 해준 李秉根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8) 따라서 이 자료의 인용은 행을 밝히지 않는다.

이 絃如은 오히려 '-때문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9] 大明律直解나 후대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絃如 앞에 是가 오고 다시 그 앞에 敎旨 宣旨 등의 旨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포를 확인한 朴盛鍾(1987)은 '시울(絃)'의 'ㄹ'을 동명사어미로 보는 새로운 해독을 제시한 바 있다. 尙書都官貼에도 絃如가 나오는데 동사 어간 敎是에 통합되어 쓰였다.

(20) 人臣之意良中 擬議 不冬 敎 罪惡是去有乙 節 議論 不冬 敎 第亦中 後代鑑戒 無 敎是絃如 敎事是去有等以(尙書都官貼 76-78)

문맥이 매우 까다로워서 정확하게 해독할 수는 없으나 絃如가 '계속하여'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慶州司首戶長行案(其一)은 李樹健(1974)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許興植(1988)에서 판독된 바 있다. 매우 선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독이 있을 수 없는 자료이나 이두로 읽을 것인지 한문으로 읽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21) 2-4행 : 古有六部 一曰中興…… 六曰臨川等叱 六部(許興植) ⟶ ……六曰臨川等叱 六部
8-9행 : 赫居世…… 立國爲 王國號徐羅(許興植 p. 290), ……立國王國爲 號徐羅(許興植 p. 178) ⟶ ……立國爲王 國號徐羅
17행 : 首戶長姓名乙 順音施行(許興植 p. 179), 首戶長姓名乙 順音可 施行(許興植 p. 291)⟶首戶長姓名乙 順音可 施行
19—20행 : 推考行公次 等乙 用良(許興植 p. 291)⟶推考行公次第乙 用良(許興植 p. 179)

2-4행의 等叱은 15세기의 '-트렛'에 해당하는 이두로서 等을 爲等如의 等처럼 15세기의 '돐'에 대응시킬 수 있다. 8-9행의 立國爲王은 한문으로 읽어야 할 곳으로 爲를 이두로 보아 'ᄒᆞ'로 새겨 읽어서는 안 된다. 17행 順音可의 音可는 15세기의 '-음직/음직'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듯이 淨兜寺形止記와 尙書都官貼의 順可只와 사실상 같은 이두이다.

(1.36)의 洪武戊午 長城監務官貼文은 鮎貝(1934)와 集成(1934)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10] 이 둘의 판독은 여러 곳에서 역시 다르다.

(22)	鮎 貝	集 成
1.	焚修祝聖 爲白臥乎以是在亦	焚修祝聖 爲白臥乎 次是在亦
2.	奏聞 除良 只法孫案牒施行	奏聞 除良只 法孫案牒施行
3.	問備申省 爲乎 味 了乎等 用良	問備申省 爲乎 味 了乎 用良
4.	禪師中延奏請造排 敎 弟中	禪師中延奏請造排 敎弟中
5.	判下 敎 由以 法孫案牒施行	判下敎由 以法孫安牒施行

9) 홍기문(1957 : 335)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집들이(間閣 等亦) 모두(並只) 퇴락하기 때문에(頹落爲絃如)민망하온지라(悶望是白去乎 在等以)"
10) 이 자료도 原文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다. 따라서 인용 예의 행은 밝히지 않는다.

(22.1-2)와 (22.4)는 集成이 (22.5)는 鮎貝가 올바르게 읽은 것 같다. 鮎貝가 (22.1)의 판독에서 以字라고 한 곳은 이두의 통사론적 구성으로 보아 명사류에 속하는 字의 자리이고 이 자리에 集成은 형식명사 次를 놓은 것이다.

(23) 誅流員將矣 奴婢ホ乙 公私分屬 令是 事是 次(松廣寺奴婢文書 1—3)

松廣寺奴婢文書에 이미 次字가 형식명사로 쓰인 예가 있고 그 의미도 완전히 서로 일치하므로 集成의 판독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22.2)에서도 15세기의 '-악/억'을 고려한다면 集成의 판독이 옳다고 할 수 있다. (22.3)에서는 '了乎等 用良'으로 읽은 鮎貝의 판독이 옳은 것 같다.

(22.4)의 敎弟中은 集成처럼 한문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를 鮎貝처럼 이두로 읽어 (20)의 '敎 第亦中'에 대응시키는 시도도 해 봄직하나, 敎弟는 일종의 불교용어로서 명사류에 속한다. 즉 불교의 풍속으로 한 선생의 제자들은 서로 형제라고 일컫는데 그런 형을 敎兄이라고 함에 대해서 그런 아우를 敎弟라 한다는 것이다(홍기문 1957 : 343). 따라서 敎弟中의 中은 敎弟 '가운데서'에 해당한다. 이 (22.4)의 바로 뒤에는 다음의 문장이 이어진다.

(24) 僧矣 身乙 寺以 主差備 敎等 用良(鮎貝, 集成)⟶ ……寺主以 差備……(홍기문 1957 : 343)

'寺以 主'는 (13)에서와 마찬가지 성격의 誤記로 보아 寺主以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2.5)의 '敎由以'도 이두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1. 祖聖勤勞創立 敎 王業幾殆 敎是如乎等 用良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 在而亦 累世私門成鴈甲兵 自衛爲有如乎 由以 (尙書都官貼 36—38)
2. 右副代言正順大夫……臣李芳遠 洪武貳拾參年七月初四日 別本 由以 后如 敎事是去有等以 (高麗末戶籍文書 둘째폭 10—12)

(2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由以가 이두로 사용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15세기의 '전츠로'에 해당하는 이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鮎貝와 集成이 모두 잘못 읽은 듯한 곳이 두 군데 있다.

(26) 1. 一間置遣 無亦 改排爲白乎等以⟶ ……一間置 遣 無亦……
2. 並只 改排報狀 爲置是乎等 用良⟶ ……改排報狀爲置是乎等 用良

(26.1)의 遣은 鮎貝가 雜攷에서 이미 수정한 바 있듯이 遣의 誤讀일 가능성이 높다. 置遣을 그대로 두어 '-두고'에 해당하는 이두라고 하면 이는 문맥에 맞지 않을 뿐더러 無亦과의 통사관계가 무너진다. 이에 비해 遣字를 遣字로 대체하면 '一間置 遣 無亦'가 되어 현대국어의 '한 간도 남김 없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鮎貝와 集成이 모두 (26.2)에서처럼 爲置是乎等으로 읽은 것은 是字의 일반적 용법에 비추어 보면 의심스러운 판독이다. 고려시대의 이두에서는 是字가 항상 명사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是는 격조

사에 쓰이는 亦과 엄격히 구별되어 계사로만 쓰일 뿐이고 활용어미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26.2)는 '改排報狀爲置是乎等 用良'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慶州戶長其二는 침입해 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 기록물이다. 매우 선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독이 있을 수 없으나 許興植(1988)을 비롯하여 이두 부분을 잘못 읽은 경우가 없지 않다.

(27) 12-13행 : 僧崔純 令同正白漢林等叱 二十餘人亦(許興植)——→僧崔純 令同正白漢林等叱……
14-15행 : 元帥敎 是以 婦人小兒出城爲於爲(許興植 p. 181)——→元帥敎是以 婦人小兒出城爲於爲(許興植 p. 298)——→元帥敎是 以婦人小兒 出城爲於爲

12-13행의 等叱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15세기의 '-트렛'에 해당하는 이두이다. 14-15행은 주격조사 敎是가 사용된 곳으로, 주격조사에 以가 다시 통합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敎에서 是를 떼어 '敎 是以'로 읽어서도 안 된다. 以는 뒤에 오는 명사구에 붙는 한문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번역하면 '元帥께서 婦人小兒로 하여금 出城하도록'이 된다.

南氏奴婢文書는 조선조 숙종년간에 필사된 南宗通記에 실린 자료이다. 국문학논집(단국대 국문과) 9집에 소개된 바 있는데, 전사할 때 잘못 전사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시대의 이두 용례로 보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두가 여러 군데 보인다.[11]

(28) 2행 : 許與成給爲叱乎 事叱段——→許與成給爲臥乎……
5행 : 婢永珍衣 身乙——→婢永珍矣……
8행 : 傳許與 不得 身故爲良弥——→ ……身故爲良尒

2행의 爲叱乎는 도대체가 찾아볼 수 없는 이두이므로 爲臥乎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5행의 永珍衣도 고려시대 이두의 속격조사에 衣가 쓰인 일이 없으므로 永珍矣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8행의 爲良弥도 찾아볼 수 없는 이두이다. 고려초기 이후에는 弥 대신 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良에 弥가 직접 통합되는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爲良尒이 올바른 것이라 추정한다.

許興植(1988)이 이 자료의 한문과 이두를 구별하여 판독한 바 있는데 오독이 많다.

(29) 3행 : 奴婢分給決矣 出子龍金乙——→奴婢分給決 矣 出字龍金乙
6행 : 子孫傳持鎭長使用向 事有 證成文爲遣——→ ……使用 向事 有證成文爲遣
9행 : 有證成文許與爲去乎在 等以——→ ……爲去乎 在等以
10행 : 後次矣 同腹族類等戈只——→後次 矣 同腹族類等戈只
11행 : 起云爭望爲 行人有去等——→起云爭望 爲行 人 有去等

3행과 10행의 矣는 1인칭 대명사로서 '저'에 해당하는 이두이다. 여기서는 '저의'의 뜻으로 쓰였다. 6행의 有證成文은 9행에도 나오는 것으로 有를 이두로 읽을 수는 없다. 向을 事에서 떼어 使用에 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9행의 在는 동사어간으로 사용된 것인바

11) 이 자료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준 南豊鉉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를 동명사어미로 읽어서는 된다. 爲去乎와 같이 동명사어미로 끝나고 바로 뒤에 동사류가 오는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1행의 '爲行人'은 松廣寺奴婢文書에도 나오는 것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의 의미이다(南豊鉉 1974 참조). 行은 15세기의 복합동사 'ᄒᆞ니-' 'ᄃᆞ니-'의 '니'에 대응한다.

張戩所志에도 이두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초서로 흘려 쓴 곳이 많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부식된 부분이 많아 전체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李基白(1987)과 許興植(1988)을 중심으로 판독하기로 한다.

(30) 3행 : 矣身以 傳持□持是臥乎 居乙(李基白)——→……傳持契持是臥乎 置乙(許興植)——→……傳持□持是臥乎 在乙
4행 : □□自矣 婿朴乙(李基白)——→□□乎矣……(許興植)
6행 : □□令孫族中施乎□□(許興植)——→ ……令孫族中是乎……(李基白)
8행 : 出食□□爲□乎 (李基白)——→ ……□□爲可臥(許興植)——→ ……□□爲有臥
11행 : 文字相考遣(許興植)——→文字相考爲遣(李基白)
15행 : 向敎是 事乙良 告爲白 內外 事是亦 在(李基白, 許興植)——→ ……告爲白內臥 事是亦 在

위의 3행은 행간에 적어 넣은 부분으로 글씨가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끝 부분이 居乙이나 置乙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두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곳은 이두문의 관행과 문맥으로 보아 在乙이 올 자리로 추측된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두로는 在乙과 ㅈ乙이 있으나 필체가 ㅈ乙보다 在乙에 가깝다. 4행에서는 自矣의 自가 쓰일 곳이 아니고 연결어미가 와야 할 곳이므로 乎矣가 맞을 것이다. 8행의 爲□臥는 臥가 종결어미인 것처럼 쓰인 곳인데 □는 可가 아니라 有로 채울 곳이다. 爲有臥로 문장이 끝나는 예가 있는 것이다. 15행은 문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흔히 볼 수 있는 '事是亦 在' 앞에 內外가 온 예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內外도 이두일 터인데 爲白內臥의 內臥가 아닌가 한다. 內外가 맞는 것이라면 告爲白의 앞에 와야 語順이 어울린다.

高麗末戶籍文書는 일제시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金東旭(1972)에 사진이 실린 바 있으나 국어학자로서 이 자료에 나오는 이두에 관심을 보인 학자는 아직껏 없었다. 許興植(1976 : 11-18)과 李基白(1987)의 판독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판독이 잘못된 곳이 몇 군데 보인다. 이두가 가장 많이 쓰인 둘째폭의 예만 들기로 한다.

(31) 2행 : 成籍一件乙良 官上 一件乙良(許興植)——→ ……官上爲遣 一件乙良(李基白)
3행 : 明分開坐 記錄齊(許興植)——→ ……記錄爲齊(李基白)
8행 : 戶口之法 不明所致是良亦 今后(許興植)——→ ……不明所致是良ㅈ(李基白)——→ ……不明所致是良尒
14행 : 明文等乙(許興植)——→明文乙(李基白)

8행의 是良亦과 是良ㅈ은 是良尒의 잘못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잘못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Ⅳ. 結 語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는 (1) (2)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직껏 없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70년대에 들어 와서 許興植을 비롯한 여러 國史學者들이 새로이 발굴해 낸 고려시대의 여러 史料에 이두가 많이 쓰였으나 國語學者들은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修禪社寺院現況記 尙書都官貼 淸州牧官文書 感恩寺飯子 慶州司首戶長行案(其一, 其二) 南氏奴婢文書 張敬所志 高麗末國寶戶籍文書 등은 주의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할 이두 자료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자료의 판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국사학자들은 문맥만 대체적으로 통하면 이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나아가서 이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誤讀을 한 예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므로 여러 국사학자들의 판독을 일일이 대조 검토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알려져 온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 대해서도 판독상의 비판을 가하였다. 여기서도 많은 부분이 오독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원래의 자료에 이미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기왕의 여러 판독에서 어느 판독이 정확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필자의 판독을 새로이 제시한 곳도 20군데가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서 빠진 것이 더러 있을 것이며, 새로이 제시한 필자의 판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시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의 叱正을 바란다.

參 考 文 獻

高正儀(1987), "淨兜寺 五層石塔 造成形止記의 吏讀", 울산어문논집 3.
金根洙(1975), 吏讀資料選集, 亞細亞文化社.
金東旭(1972), 古文書集眞, 연세대출판부.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출판부.
南豊鉉(1974), "13世紀 奴婢文書와 吏讀", 論文集(단국대) 8.
———(1975), "漢字借用表記法의 '元'字考", 國語學 3.
———(1976), "高麗初期의 貼文과 吏讀", 國語國文學 72—73.
———(1985), "借字表記法의 '日'字에 대하여", 歷史言語學(金芳漢先生回甲記念).
朴盛鍾(1987), "大明律直解의 '旨是絃無亦'과 '旨是絃以'에 대하여", 國語學 16.
朴喜淑(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硏究", 明知大 博士學位論文.
安秉禧(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硏究", 東洋學 7.

———(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東方學誌 38.
———(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규장각 9.
———(1988), 吏文과 吏文大師, 탑출판사.
梁柱東(1965), 增訂古歌研究, 一朝閣.
李基文(1970), "新羅語의 '福'(童)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49-50.
———(1981), "吏讀起源의 一考察", 震壇學報 52.
李基白(1987),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李樹健(1974), "朝鮮朝 鄕吏의 研究——戶長에 대하여", 문리대학보(영남대) 2-2.
———(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출판부.
李丞宰(1987ㄱ), "屬格形態 'ㅅ'의 形成過程", 聖心語文論輯 10.
———(1987ㄴ), "'將來'考", 國語學 16.
任昌淳(1971), "松廣寺의 高麗文書", 白山學報 11.
장지영·장세경(1976), 이두사전, 정음사.
趙東元(1983), 韓國金石文大系(卷三), 원광대출판국.
韓相俊·張東翼(1982), "安東地方에 傳來된 高麗 古文書 七例 검토", 慶北大論文輯(인문 사회과학) 33.
許興植(1976), 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 亞細亞文化社.
———(1981),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2 上·下), "一二六二年 尙書都官貼의 分析", 韓國學報 27-29.
———(1984),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1985), "一三四九年 淸州牧官의 吏讀文書", 韓國學報 38.
———(1988), 韓國의 古文書, 民音社.
홍기문(1957), 이두연구, 과학원출판사.
洪淳鐸(1974), 吏讀研究, 광문출판사.
———(1976), "松廣寺 圓悟國師 奴婢帖", 湖南文化研究(전남대) 8.
黃壽永(1978), 增補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小倉進平(1929), 鄕歌 및 吏讀의 研究, 京城帝大.
前間恭作(1926), "若木石塔記의 解讀", 東洋學報 15-3.
鮎貝房之進(1934/1972), 雜攷 俗字攷 俗文攷 借字攷, 國書刊行會.
中樞院(1934/1975), 吏讀集成, 國書刊行會.